

위창수 “바람 불어 좋은 날”

PGA 혼다클래식 1R 5언더 단독 선두 우즈·싱 불참... 투어 첫 우승 절호 찬스

위창수(35·테일러메이드)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혼다클래식에서 단독 선두에 올랐다.

위창수는 2일(한국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가든스의 PGA내셔널리조트 캠퍼인코스(파70·7천48야드)에서 열린 대회 첫날 버디 7개와 보기 2개로 5언더파 65타를 쳐 2위인 유럽의 노장 베른하르트 랑거(독일)에 1타를 앞서 패조의 스타트를 끊었다.

페어웨이와 좁고 러프는 긴데다 그린이 딱딱하고 굴곡이 심해 ‘이브와 안팎이 우승 스코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까다롭게 세팅된 코스에서 바람까지 불었지만 위창수의 첫날 플레이는 그다지 흠잡을 데가 없었다.

드라이브샷 평균 비거리를 280.5야드로 적절하게 유지하는 한편 페어웨이 안착률도 85.7%로 출전 선수중 가장 우수했다. 또 그린 적중률은 72.2%로 10위권에 들었고 퍼트 수는 26개로 7위를 차지하는 등 3박자가 고루 들어맞았다.

특히 위창수는 13번홀(파4)에서 12m짜리 퍼트를 성공시키는가 하면 7.5m 이내 거리의 퍼트 20개중 17개를 홀에 떨어트렸다. 그는 경기 후 인터

뷰에서 “2005년 투어에 데뷔했을 때 힘들었지만 많은 것을 배웠다”면서 “두 번째로 투어 무대에 나서니까 선수들이나 코스가 눈에 익어 더욱 편안하게 경기를 할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위창수는 2005년 PGA투어에 데뷔했다가 성적이 부진해 작년에는 2부 네이션와이드 투어를 뛰면서 캘리포니아를 재수를 통해 올해 새로 진입했다.

제미교포 앤서니 김(22·나이카골프)은 이번과 70타로 공동 21위에 자리를 잡았으나 나상욱(23·코오롱)은 버디 3개와 보기 3개, 더블보기 2개로 4오버파 74타를 쳐 81위그룹으로 떨어졌다.

세계골프랭킹 2위 짐 퓨릭(미국)은 1언더파 69타로 공동 17위에 올랐지만, 작년 대회 우승자인 루크 도널드(잉글랜드)는 7오버파 77타로 무너지면서 공동 118위까지 처져 타이틀 방어에 빨간불이 켜졌다.

한편 혼다클래식은 최근 11년간 다섯 차례나 생애 첫 우승자를 배출했을 정도로 투어 첫 우승을 노리는 선수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위창수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혼다클래식 1라운드에서 단독 선두에 올랐다. 사진은 SK텔레콤클래식에서 우드 샷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동국 “이번엔 골대 아니라 골”

오늘 자정 뉴캐슬과 원정경기 출전할 듯

박지성·설기현도 출격 완료

잉글랜드 프로축구 무대에 데뷔하자마자 두 번 연속 골대 불운에 운이동국(28·미들즈브러)이 다시 출격 준비를 갖췄다.

이동국은 3일 자정(이하 한국시간) 영국 뉴캐슬 세인트 제임스파크에서 열리는 2006-2007 프리미어리그 29라운드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에 정규시즌 두 번째, 통산 세 번째 출전한다.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미들즈브러 감독은 지역신문 ‘이브닝가제트’와 인터뷰에서 “이동국에게 운이 따랐더라면 벌써 몇 골은 넣었을 것”이라며 “그는 잘 적응하고 좋은 태도를 갖고 있는데다 무엇보다 골을 넣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그러나 “이동국의 몸 상태를 베스트로 끌어올리기 위해선 좀 더 할 일이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를 곧바로 투입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동국은 따라서 28골을 합작한 미들즈브러의 투톱 듀오 아예그네니 야쿠부(나이지리아), 마크 비두카(호주)의 뒤를 받치는 ‘조커 요원’으로 출격 명령을 기다릴 전망이다.

지난 달 25일 레딩과 프리미어리그 데

뷔전에서 9분, 28일 웨스트 브로미치와 FA컵 5라운드 재경기에서 39분을 소화한 이동국은 득점에는 실패했지만 여러 차례 예리한 슈팅력을 보여줘 합격점을 받았다.

이동국은 레딩전에서 골 포스트를 맞혔고 FA컵에선 승부차기 두 번째 키키로 나갔다가 또 골대에 맞혔다.

이동국도 “승부차기 실축의 기억을 빨리 잊어야겠다”고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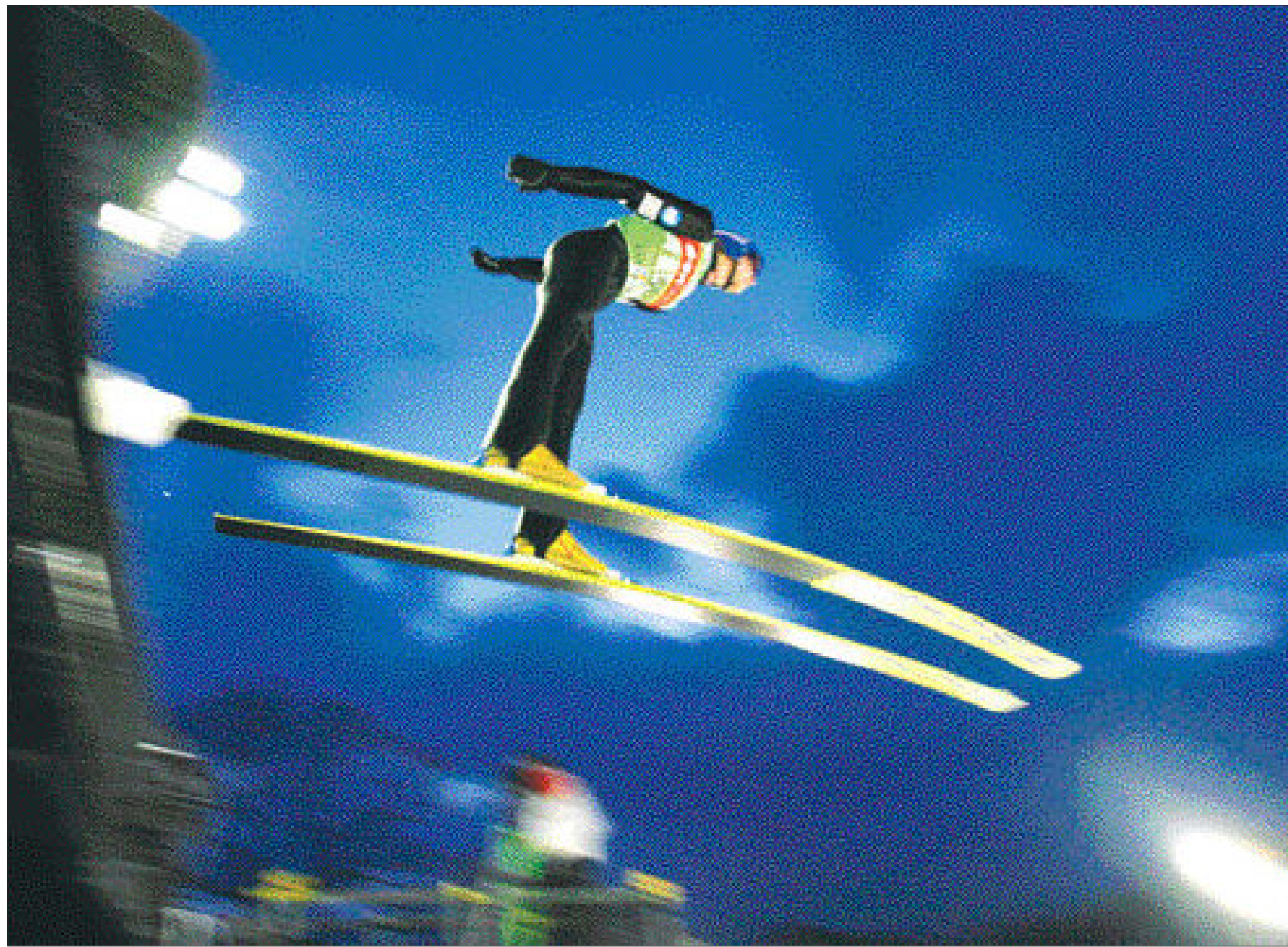
박지성(26·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은 이보다 앞선 3일 오후 9시45분 맨체스터 시티에서 열린 리버풀과 29라운드 원정 경기에 나선다. 지난 달 28일 설기현(28·레딩FC)과 맞대결을 벌인 FA컵 5라운드에서 풀타임을 소화해 선발 출전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정규리그에서 좀처럼 출전 기회를 잡지 못하는 설기현은 이동국과 같은 시간인 3일 자정 런던 에미레이트 스타디움에서 그를 곧바로 투입할 수 있다.

스티브 코펠 레딩 감독은 정규리그 엔트리에서 설기현을 네 경기 연속 제외했다.

이영표(30·토트넘)는 하루 뒤인 5일 오전 1시 웨스트햄과 원정 경기에 변함없이 출전할 것으로 보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한마리 새처럼 2일 일본 삿포로에서 열린 세계스케이팅챔피언십에서 핀란드의 해리울리가 점프 연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농구 리그 재개... 6강 다툼 치열

3일부터 2006-2007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정규리그가 다시 이어진다. 1일 올스타전에서 선수들은 모처럼 여유있는 플레이로 즐거운 때를 보냈지만 이제 다시 치열한 순위 싸움을 펼쳐야 한다.

팀별로 9~10 경기를 남기고 있는 가운데 부산 KTF와 창원 LG가 다투고 있는 2위 자리와 무려 4개 팀이 혼전을 펼치는 6강 플레이오프 티켓의 마지막 주인공은 누가 될 지에 관심이 쏠린다. KTF는 이번 주말 6강 진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안양 KT&G, 서울 SK를 연달아 만나는 반면 LG는 김주성이 빠진 원주 동부, 최하위 전주 KCC를 상대해 다소 유리해 보인다.

공동 2위인 두 팀은 1위 울산 모비스에 4.5경기 차로 뒤져있고 4위 서울 삼성엔 2.5경기 앞서있어 2,3위를 나뉘기 힘들 가능성이 높

은데 2위까지 4강 플레이오프에 직행할 수 있기 때문에 남은 10경기에서 그야말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6위 자리를 놓고서는 4대 1의 경쟁이 진행 중이다. 공동 6위 KT&G와 동부(이상 20승24패), 공동 8위인 SK와 인천 전자랜드(이상 20승25패)가 0.5경기 차로 붙어 있다. 5위인 대구 오리온스가 23승22패로 앞서 있어 이 4팀 중 하나가 마지막 6강행 열차에 올라탈 가능성이 높다.

4일엔 KT&G와 전자랜드가 안양에서 맞대결을 펼친다. 경쟁 상대와 맞대결은 다른 경기보다 2배 이상 중요하기 때문에 총력전이 기대된다. 이밖에 정규리그 우승 매직넘버 ‘6’인 모비스가 연재준 추포를 타트릴 수 있을지, 최하위 KCC는 마지막 6라운드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지에도 팬들의 관심이 쏠린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日언론 “이병규, 톱타자 능력 보여줬다”

시범경기서 1안타 1도루

1일 후쿠오카 야후돔에서 소프트뱅크 호크스를 상대로 일본프로야구 데뷔전을 마친 이병규(33·주니치 드래곤스)가 일단 합격점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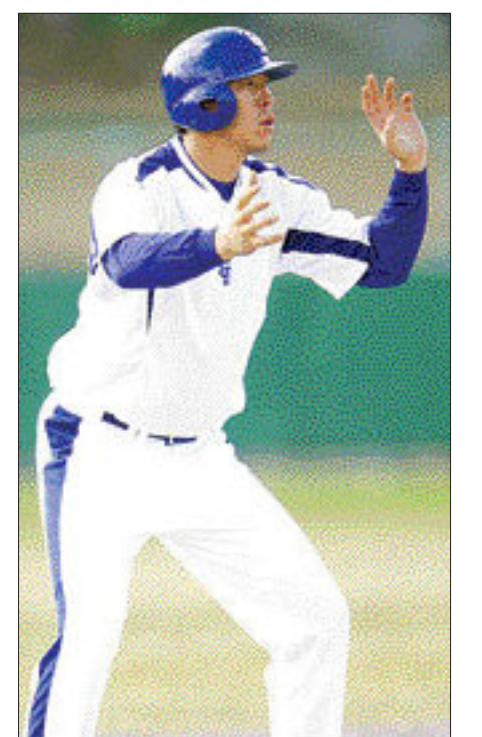
주니치 계열 스포츠전문지 ‘주니치 스포츠’는 2일 인터넷판에서 “이병규가 기술과 순발력으로 톱타자의 능력을 높이 증명했다”로 호의적인 평가를 내렸다.

‘기술’이란 1회 첫 타석에서 중전 안타로 출루한 방망이 솜씨를 뜻하고 ‘순발력’이란 1회 1사 1루에서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으로 2루를 훔친 것을 의미한다. 1루 견제에 유리한 좌투수 가미우치 야스시를 상대로 올린 성적이었기에 더욱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신문은 1,2,3,5번에 기용될 이병규가 1번 타순에서 처음으로 검증 받았고 최고의 해답을 내놓았다고 극찬했다. 이병규는 3회와 6회 타석에서는 각각 포크볼, 슬라이더에 헛스윙 삼진으로 돌아섰지만 첫 타석에서 보여준 강렬한 인상 덕분에 큰 지적은 받지 않았다.

이병규는 경기 후 “우연히 안타가 나왔을 뿐 앞으로 실전에서 페이스를 끌어올리고 싶다”며 답답히 말했다. 주니치 스포츠는 이병규가 이날 1년 만에 다시 선 야후돔에서 감개무량한 표정을 지었다며 2년 연속 후쿠오카에서 도전을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아라카 마사히로-이바타 히로가즈-후쿠도메 고스케로 이어지는 샌드럴리



이병규(주니치 드래곤스)가 1일 후쿠오카 야후돔에서 열린 소프트뱅크 호크스와 시범경기에서 1번 타자로 선발 출장해 3타수 1안타 1도루 1개를 기록했다. 사진은 지난 2월 오키나와 요미탄에서의 스프링 캠프 연습 장면.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그 최강의 상위 타선을 자랑했던 주니치는 1번 타자의 능력을 입증한 이병규의 가세로 움직임이 더욱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

광주벨인포컴 이나영·윤희여 볼링 청소년대표에



<이나영>

<윤희여>

이나영은 지난달 27일부터 1일까지 3일간 대구 삼호볼링장에서 열린 청소년대표 선발전에서 평균 211.5점을 기록, 1위로 청소년 대표에 선발됐다.

또 윤희여도 평균 209.3점을 기록해 7위로 역시 청소년대표에 선발됐다.

이로써 광주벨인포컴 여자볼링팀은 국가대표 김여진, 강혜은과 더불어 청소년대표 2명을 보유하게 돼 전국최강의 전력을 구축하게 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3일(토)

▲2007 메이저리그 시범경기 <피츠버그 : 애블랜타> (02 : 55·Xports)

▲2007 PGA 혼다 클래식 2R (05 : 00·SBS골프·SBS스포츠)

▲06/07 프로농구 <삼성 : 모비스> (14 : 50·SBS스포츠·Xports)

▲HILLSTATE 06/07 V리그 <홍국생명 : GS칼텍스> (16 : 00·KBS N SPORTS)

▲2007 여자프로농구 겨울리그 <우리는 행 : 금호생명> (16 : 50·SBS스포츠)

▲06/07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리버풀 : 맨체스터UTD> (21 : 30·MBC ESPN)

4일(일)

▲06/07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뉴캐슬 : 미들즈브러> (00 : 00·MBC ESPN)

▲06/07 이탈리아 세리에 A축구 <리보르노 : 인터밀란> (02 : 50·KBS N SPORTS)

▲06/07 이탈리아 세리에 A축구 <AC밀란 : 키예보> (04 : 20·KBS N SPORTS)

▲2007 PGA 혼다 클래식 3R (05 : 00·SBS골프·SBS스포츠)

▲2007 K리그 <광주상무 : 전북현대> (15 : 00·MBC·SBS)

▲06/07 네덜란드 리그 <아약스 : 헤렌벤> (22 : 20·SBS스포츠)

5일(월)

▲06/07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웨스트햄 : 토트넘> (01 : 00·MBC ESPN)